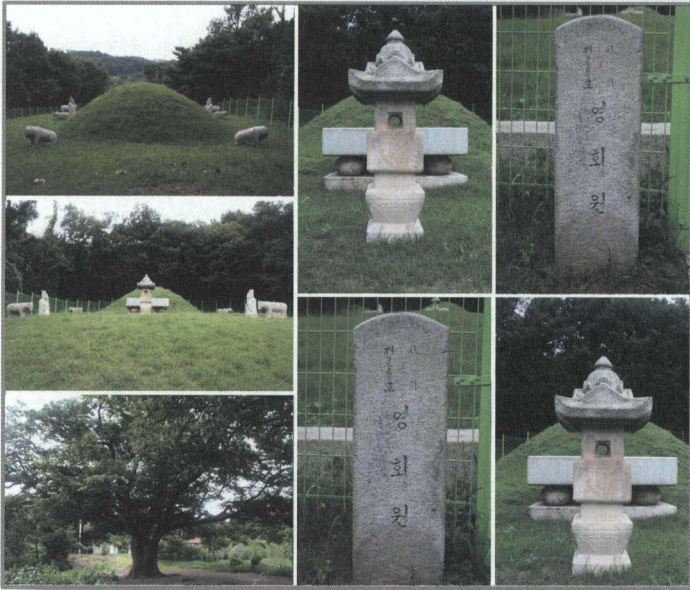


광명시



## 영회원(永懷園)

### 1. 연혁

원 주 : 소현세자빈 민회빈(愍懷嬪) 강씨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지정번호 : 사적 제357호

원묘조성 : 1646년(인조 24)

봉원연대 : 1903년(고종 7)

원묘형태 : 단묘

### 2. 원 소개

서울에서 서부간선도로를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달려가다 금천교에서 빠져나오면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가는 큰 길을 만날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한 치고개를 넘어가면 애기능저수지 입구



영회원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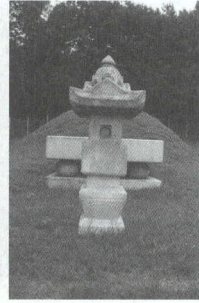
에 도착하는데, 이 저수지로 진입한 후 저수지를 따라 농원 안으로 들어가면 영회원을 만날 수 있다.



영회원 전경



영회원 표시석



영회원 장명등과 봉분

영회원은 소현세자의 부인 민회빈 강씨의 무덤이다. 민회빈 강씨는 강감찬의 19대 손녀이기도 하며,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로 끌려가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다. 귀국 후 소현세자가 죽자 인조의 후궁 조씨 등이 민회빈이 소현세자를 독살하고 왕실을 저주한다는 모함을 하여, 궁궐에서 쫓겨나 1646년 사약을 받고 죽었다. 숙종 44년(1718)에 죄가 없음이 밝혀져 다시 복위되고, 고종 7년(1903)에는 무덤을 영회원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원묘의 시설은 봉분(封墳)·혼유석(魂遊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석마(石馬)·석양(石羊)·석호(石虎) 등이 있으나 비석(碑石)과 정자각(丁字閣)은 남아 있지 않다.

### 3. 원주 소개

세자빈 강씨는 우의정을 지낸 문정공(文貞公) 강석기(姜碩期)의 딸로 인조 5년(1627)에 세자빈이 되었고 병자호란 때는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평소 민회빈과 사이



뒤에서 바라본 영회원

가 좋지 않았던 인조(仁祖)의 후궁(後宮) 조씨(趙氏) 등이 민회빈이 소현세자를 독살하였고 왕실을 계속 저주한다고 거짓 꾸며대는 바람에 인조 23년(1645)에 폐빈(廢嬪)되고 그 다음해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하였다. 그 뒤 숙종(肅宗) 44년(1718)에 세자빈 강씨의 결백함이 밝혀져 민회빈으로 복위되고 고종 7년(1903)에는 이 묘를 영회원(永懷園)이라 이름 지었다.

### 4. 민회빈복위반교문

송상기(宋相琦), 《玉吾齋集》 卷12, 愍懷嬪復位頒教文

愍幽冤而伸枉獄 旣循舉國之羣情 復舊號而備縟儀 聿修曠世之盛典 颺  
茲命 諭予深衷 言念乙丙年間 正值百六邦運 元良喪逝 懷乎國勢之多  
虞 巨 猾恣睢 猖然禍心之潛蓄 讒言交煽於內外 釁孽遂起於宮庭 獄情  
幽 盟坎之計何異 天威嚴重 覆盆之冤難明 逮有辛生之構誣 益肆壬人  
之鍛鍊 闔門邁禍之慘 舉世同悲 聖祖恤孤之恩 微意可見 二三臣進言雖切

七十載飲恨無窮 人心久鬱則必通 事若有待 天道無往而不復 理亦可徵  
肆庸集議於羣工 遂定追復於貳壺 乃於本月二十一日 以愍懷嬪姜氏 合奉  
昭顯世子廟 滌丹書之舊案 爰及父母兄弟 配青宮之遺祠 仍共享祀芬苾  
尊名寔表於行跡 像設更聯於寢園 禮數咸登 奚但邦典之無歉 泉塗改照  
抑亦神理之獲安 茲爲稀闊之令章 豈非吉祥之善事 於戲 施仁布澤 旣無  
間於存亡 蕩垢滌瑕 庶可推於遐邇 故茲教示 想宜知悉

## 5. 민회빈시책문

송상기(宋相琦), 《玉吾齋集》 卷12, 冊文 愍懷嬪諡冊文

滌九地之銜冤 追復位號 揭二字之節惠 寔遵彝章 斷自予衷 慰彼輿望  
惟云云 親膺妙選 早配元良 受名父之訓辭 濡染有素 居家人之正信 內外  
相成 懽愉久奉於兩宮 警戒寧忘於一日 間值虜氛之凌逼 奄見國步之蒼黃  
隨廟社於江都 備經艱險 作羈質於瀋館 屢易星霜 逮鶴駕之言旋 並象服  
而無恙 夫何哖笑之未久 遽爾倚伏之相仍 痛身世之未亡 但有血泣 怨昊  
穹之不弔 若無憑依 嗟乎邦運之愈屯 重以宮掖之有變 孽豈自作 蓋緣讒  
間之孔深 事有難言 終致恩愛之莫保 哀哉母子之并命 慘矣兄弟之何辜  
孤墳久寄於松楸 已失離祔 私廟堇延於香火 曷稱情文 道路爲之咨嗟 婦  
孺莫不傷蠹 構獄之兇賊肆市 足徵天道之好還 訟冤之直臣復官 可見聖祖  
之微意 覽文貞之徽蹟 世德可占 瞻永慶之遺祠 感懷彌切 全家之枉盡洗  
僂嚮之位重光 儀章一新 追視震邸之例 物采咸備 若在京室之初 邦禮自  
此得宜 神理亦應無憾 祇告太廟 詎嫌先朝之未遑 移奉別宮 幸睹曠典之  
克舉 謹遣臣云云 於戲 除丹書之舊籍 庶慰孤魂 托彤管之新詞 永垂遐祀  
嗚呼哀哉